<h1>나 혼자만 레벨업-57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fa6bd3124e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7화</p>  
<p>"방금 하는 말 들었어? 완전 대박."</p>  
<p>어느새 근처까지 다가온 유수현이 유진호의 어깨를 톡톡 쳤다.</p>  
<p>유수현의 미간이 곱게 구겨졌다.</p>  
<p>"이거 봐 봐. 한심하긴, 쯧쯧. 한심하긴, 쯧쯧."</p>  
<p>형을 똑같이 흉내 내는 표정에 유진호가 그만 웃음을 터트렸다.</p>  
<p>"푸흡. 큭. 하지 마. 지금 농담할 기분 아냐."</p>  
<p>"한심하긴, 쯧쯧."</p>  
<p>"크흐흐흐, 큭! 아, 좀 그만하라고!"</p>  
<p>둘은 나이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.</p>  
<p>유수현은 유진호 앞에 와 섰다.</p>  
<p>"왜 그러고 사냐?"</p>  
<p>"내가 뭘?"</p>  
<p>"각성자 됐잖아. 설마 각성하고도 일반인을 못 이겨?"</p>  
<p>"그래서? 형한테 주먹이라도 날리라고?"</p>  
<p>"그건 뭐 아니라도..."</p>  
<p>유수현은 예쁜 입술을 앙다물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잘난 형한테 주먹이라도 날렸다간 아버지께 어떤 벌을 받게 될지...</p>  
<p>상상만 해도 끔찍했다.</p>  
<p>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유진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. 유수현은 유진성이 사라진 곳을 향해 눈을 흘겼다.</p>  
<p>"하여간 재수 없는 건 여전하네, 저 인간."</p>  
<p>유진호만큼 유진호의 형을 싫어하는 게 그녀였다.</p>  
<p>스마트한 표정 아래 숨겨진 유진성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.</p>  
<p>그러나 유진호는 동조하지 않았다.</p>  
<p>형이라서가 아니다.</p>  
<p>이렇게 뒷담화가 아니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형을 이겨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입을 다물고 있자, 유수현이 조심스레 물어봤다.</p>  
<p>"저기... 그 계획 아직 유효해?"</p>  
<p>"응?"</p>  
<p>"길드 마스터 될 거라며. 저 인간 제치고."</p>  
<p>유진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말한들 누가 믿어 줄까?</p>  
<p>비웃지 않으면 다행이다. 형과 자신의 대결이라니.</p>  
<p>그래도 형님이라는 빅 카드를 얻은 덕분에 가능성은 많이 올라갔다.</p>  
<p>'무사히 마스터 면허를 딴다면...'</p>  
<p>승부를 걸어볼 만했다.</p>  
<p>아니, 이길 수 있었다.</p>  
<p>결의에 찬 유진호의 눈을 본 유수현이 양손을 자기 허리에 얹고 단호히 말했다.</p>  
<p>"난 죽어도 저 인간 밑으로는 안 들어갈 거야. 너네 아버지랑 싸우기 싫으니까 니가 알아서 잘해."</p>  
<p>"...고마워."</p>  
<p>이게 유수현의 응원 방식이었다.</p>  
<p>인기 아역배우 출신에 A랭크라는 높은 등급을 가진 여헌터.</p>  
<p>재벌가의 아가씨라는 배경을 빼고도 유수현에게 눈독 들이는 길드는 별처럼 많았다.</p>  
<p>하지만 아쉬울 것 없는 유수현은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간간이 모델 활동만 해 왔다.</p>  
<p>그런데 이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.</p>  
<p>바로 유진길드의 창립 멤버 제의.</p>  
<p>유명한 회장의 지시였다.</p>  
<p>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순 없고, 그렇다고 유진성의 밑으로 들어가기는 싫고.</p>  
<p>유수현도 고민이 많았다.</p>  
<p>미덥지는 않지만 유진호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어 보는 수밖에.</p>  
<p>우우우웅- 우우우웅-</p>  
<p>유진호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 유수현이 물었다.</p>  
<p>"전화 안 받아?"</p>  
<p>"아."</p>  
<p>잠깐 딴생각을 하고 있던 유진호가 그제야 뒤늦게 전화를 꺼냈다.</p>  
<p>액정에 뜬 번호가 낯익었다.</p>  
<p>\_형님</p>  
<p>발신자를 확인한 유진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.</p>  
<p>"접니다, 형님!"</p>  
<p>씩씩하게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네. 네, 형님. 아뇨, 갈 수 있습니다. 네. 금방 가겠습니다, 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180도 바뀐 유진호의 분위기에 유수현이 관심을 보였다.</p>  
<p>"뭐야? 누구 전환데?"</p>  
<p>하지만 여기서 한가롭게 설명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형님의 부탁 아닌가!</p>  
<p>여길 벗어나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서 1초라도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.</p>  
<p>"이따 얘기해!"</p>  
<p>급하게 달려가는 유진호의 뒷모습을 보고 유수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왜 저리 신나 있데?"</p>  
<p>가족 모임이 있을 때의 유진호는 항상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.</p>  
<p>"...별일이네."</p>  
<p>나중에라도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유수현이었다.</p>  
<p>한편 유진호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.</p>  
<p>곧 저녁 시간.</p>  
<p>온 가족, 친척이 모인 식사 시간에 아버지 허락 없이 빠질 수는 없었다.</p>  
<p>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유진호.</p>  
<p>멀리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.</p>  
<p>호랑이상의 얼굴.</p>  
<p>어지간한 일로는 미소를 잘 보이지 않는 엄한 성격.</p>  
<p>유진호에게 아버지는 늘 어려운 상대였다.</p>  
<p>'아직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...'</p>  
<p>벌써부터 긴장됐다.</p>  
<p>하지만 용기를 내야 했다.</p>  
<p>'약속했으니까.'</p>  
<p>유진호는 심호흡을 두어 차례 하고는 천천히 아버지께 걸어갔다.</p>  
<p>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돌아서고 싶었는지 모른다.</p>  
<p>그래도 꾹 참았다.</p>  
<p>유진호는 간신히 유명한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"아버지..."</p>  
<p>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.</p>  
<p>유명한의 시선이 유진호에게로 옮겨 갔다.</p>  
<p>"무슨 일이냐?"</p>  
<p>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 유명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떨어져 나갔다.</p>  
<p>"아버지,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?"</p>  
<p>아버지를 대하는 유진호의 목소리에는 유난히 힘이 없었다.</p>  
<p>"저, 저녁 시간 전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호통이라도 칠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던 유명한이 한숨을 삭히더니 마지못해 허락했다.</p>  
<p>"...갔다 오너라."</p>  
<p>유진호는 밝은 얼굴로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, 아버지."</p>  
<p>그리고 쏜살같이 떠났다.</p>  
<p>굳은 얼굴로 유진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명한에게 그의 아내가 다가왔다.</p>  
<p>"여보, 빈에서 연락 왔어요."</p>  
<p>마침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다.</p>  
<p>유명한이 관심을 보였다.</p>  
<p>"콩쿠르 결과는?"</p>  
<p>"우승했대요. 누구 딸인데 당연하죠."</p>  
<p>유명한의 얼굴에 나타난 희미한 미소.</p>  
<p>그러나 언제 그랬나 싶게 곧 자취를 감추었다.</p>  
<p>"흠, 한국엔 언제 온다고 합디까?"</p>  
<p>"학기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방학 때나 돼야 올 수 있다네요."</p>  
<p>유명한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"아무리 바빠도 할아버지 제사는 빠지지 말라고 누누이 일러놨거늘."</p>  
<p>"당신도 참. 요즘 애들이 제사를 그리 중히 여기나요."</p>  
<p>"쯧쯧."</p>  
<p>부인은 조금 흐트러진 유명한의 넥타이를 바로 매 주며 다정히 말했다.</p>  
<p>"그리고 당신, 진호한테도 신경을 좀 써 주는 게 어때요?"</p>  
<p>"또 그 소리...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돌봐야 하는 게요,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."</p>  
<p>"호랑이든 고양이든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에요. 당신 자식이기도 하고."</p>  
<p>"흐음..."</p>  
<p>"그거 아세요? 진호가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당신 앞에서 처음 웃었다는 거?"</p>  
<p>그랬던가?</p>  
<p>이채를 띤 유명한의 시선이 유진호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정되었다.</p>  
<p>그러나 그것도 잠깐.</p>  
<p>유명한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.</p>  
<p>"여자 친구라도 생긴 모양이지. 다들 기다리겠소. 우리도 들어갑시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헌터협회 본부.</p>  
<p>기기를 점검하던 한 직원이 소형 마력측정기 앞에 멈춰 섰다.</p>  
<p>"뭐야? 이거 왜 이래?"</p>  
<p>0에 멈춰 있어야 할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었다.</p>  
<p>완전히 맛이 간 듯했다.</p>  
<p>하지만 이내 대수롭잖다는 듯 넘어갔다. 정밀한 기계인 만큼 고장 나는 일은 그리 드문 편도 아니었다.</p>  
<p>"김군아."</p>  
<p>"네."</p>  
<p>부하 직원이 쪼르륵 달려왔다.</p>  
<p>"이걸로 층적한 게이트가 몇 군데냐?"</p>  
<p>"넘버가 어떻게 됩니까?"</p>  
<p>"N-1744B."</p>  
<p>일지를 검색해 보던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엊그제 일곱 군데 돌았습니다."</p>  
<p>"엊그제? 어디 봐 봐."</p>  
<p>정말이었다.</p>  
<p>엊그제 정확하게 일곱 군데를 돌았고, 그중 네 개의 게이트가 헌터들에게 닫힌 상태였다.</p>  
<p>"이걸로 측정한 게이트에서 별문제 없었지?"</p>  
<p>"네. 별다른 말은 없네요."</p>  
<p>"그래?"</p>  
<p>직원은 수염이 거뭇거뭇한 턱을 북북 긁었다.</p>  
<p>원래 마력측정기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그 즉시 해당 측정기로 측정한 게이트들은 전부 공략 허가를 취소시킨다.</p>  
<p>당연한 일이었다.</p>  
<p>C급인 줄 알고 들어간 게이트가 실은 A급이나 B급이었다면 헌터들은 어떻게 될까?</p>  
<p>결코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한다.</p>  
<p>상급 던전은 그런 곳이다.</p>  
<p>상급 헌터와 하급 헌터의 경계가 뚜렷하듯 던전도 상급과 하급의 차이가 컸다.</p>  
<p>오죽하면 상급 던전은 대형 길드들이 전담에서 맡고 있을까.</p>  
<p>'지금이라도 공지를 해야 하나?'</p>  
<p>뭐 알리는 거야 어렵지 않다.</p>  
<p>하지만 허가권을 사 간 팀의 반발도 반발이고, 만약 재측정으로 시간을 끌다가 던전 브레이크라도 터지는 날에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.</p>  
<p>잘못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.</p>  
<p>'어떻게 들어온 헌터협회인데.'</p>  
<p>헌터협회는 공기업급 대우를 받고 있었다.</p>  
<p>입사하려면 고시에 맞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.</p>  
<p>이런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다.</p>  
<p>'안 되지, 안 돼.'</p>  
<p>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부하 직원도 상관의 고민이 뭔지 대충 눈치챘다.</p>  
<p>그래서 조심스레 물었다.</p>  
<p>"이거... 어떡하죠?"</p>  
<p>"흠."</p>  
<p>벌써 이틀이나 지났다.</p>  
<p>문제가 터질 거였다면 벌써 터지지 않았을까?</p>  
<p>"...내버려 두자."</p>  
<p>"그, 그래도 되겠습니까?"</p>  
<p>"뭐, 별일이야 있겠냐? 이틀이나 지났는데."</p>  
<p>"하긴요."</p>  
<p>부하 직원도 고개를 끄떡였다.</p>  
<p>"보고서엔 N-1744B 어제까지 말짱하다 오늘부터 이상해졌다고 올려."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백호 길드의 제2관리과 과장 안상민.</p>  
<p>파를 썰던 안상민이 손질을 멈추고 허리를 곧게 펴자 요란한 소리가 났다.</p>  
<p>우두둑-</p>  
<p>"에고고."</p>  
<p>오늘 메뉴는 된장찌개.</p>  
<p>자취 생활 8년 차의 독신 남성답게 이미 어지간한 요리는 마스터했다.</p>  
<p>계기는 5년 전.</p>  
<p>인스턴트 음식으로만 배를 채우다 문득 피폐해져 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, 살기 위해 요리를 배우기를 결심, 이제는 잠깐 흘러가듯 TV에 나온 요리도 대충 눈대중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도 하던가?</p>  
<p>실력이 늘어 갈수록 식탁 위에 올리는 요리는 점점 더 간단한 집 반찬 위주가 되어 갔다.</p>  
<p>오늘의 된장찌개처럼.</p>  
<p>"캬. 이 맛이지."</p>  
<p>한 숟갈 맛을 본 안상민이 본인의 실력에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이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라니.</p>  
<p>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.</p>  
<p>'식사 초대라도 한 번 해 볼까?'</p>  
<p>순간 떠오른 부하 직원의 얼굴이 하나 있었으나 곧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노총각 소리 듣는 것도 지겨운데 남직원을 초대했다가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.</p>  
<p>'시킨 일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'</p>  
<p>말도 잘 듣고 똑똑한 녀석인데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구석이 있단 말이지.</p>  
<p>'에이, 집에서 무슨 회사 생각이냐.'</p>  
<p>밥이나 먹자.</p>  
<p>안상민은 된장찌개를 거실에 있는 탁상으로 옮기며 콧노래를 불렀다.</p>  
<p>거실에 놓인 TV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 됐다.</p>  
<p>남자 혼자 식사하기에 부엌의 식탁은 너무 크고 쓸쓸했다.</p>  
<p>삑.</p>  
<p>리모콘으로 TV를 틀며 자리에 앉았다.</p>  
<p>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[오늘의 속보입니다.]</p>  
<p>독신 생활의 얼마 되지 않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와 채널 싸움을 할 일이 없다는 거다.</p>  
<p>TV를 틀면 항상 보던 채널이 나온다.</p>  
<p>안상민은 벽에 걸린 대형 TV의 액정 화면을 곁눈질해 가며 밥을 한 숟갈 떴다.</p>  
<p>[...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헌터관리국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. 일각에서는 S급 헌터들 간의 마찰이 불러일으킨 인재가 아니냐는 소문이 커져 가는 가운데...]</p>  
<p>"어허... 참 말세다, 말세."</p>  
<p>안상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도 식사 개시를 알릴 반찬을 신중하게 탐색했다.</p>  
<p>반찬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.</p>  
<p>'역시 시작은 김치지.'</p>  
<p>[...관리국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. 갑작스럽게 건물 외벽 일부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...]</p>  
<p>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던 수저로 뜬 따끈따끈한 밥 위에 김치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시원한 김치를 올렸다.</p>  
<p>그러고는 입으로 가려가려던 순간,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.</p>  
<p>'아! 또 누구야, 또.'</p>  
<p>안상민은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들었다가 발신자를 보고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예, 안상민입니다."</p>  
<p>전화를 건 사람은 진우였다.</p>  
<p>안상민은 밝은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진우의 이야기를 듣던 안상민의 표정이 점점 어리둥절하게 변해 갔다.</p>  
<p>"예? 신입 헌터 훈련 현장을 견학할 수 있냐고요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